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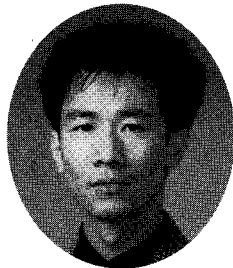
농약보도!

왜 맹독성·발암성으로 귀결되나?

언론·시민단체의 견제와 질책 바람직 스러워
근거없는 비약·비난은 보이지 않는 폭력일 수 있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식품안전성 논쟁 사례에 관해 최근 내가 재미있게 읽었으며 “아하, 그때 그 사건의 의미가 또 숨은 뒷 이야기는 그랬구나...” 하면서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심적 부담을 갖게 된 책이 있다. 이서래 선생님의 식품안전성 논쟁사례(1999. 修學社)다. 이 책에서는 2장에 걸쳐 농약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콩나물과 농약이며 또 하나는 수입농산물과 잔류농약이다.

아울러 식품 중 발암성 논란의 성분과 비발암성물질에 대한 여러 사건들도 다루



권진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환경연구관

고 있다. 저자는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학계의 큰 맥으로서 식품안전성 문제를 과학적 논리로 해결코자 하였다. 또 후진들이 식품의 오염문제를 최소화 하고 위해 논쟁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

겨 있다. 특히 40여년간 식품과학과 안전성 연구에 몰두해 온 학자였기에 정체불명(?)의 환경운동가가 집필한 전문지식 부재와 국민 건강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논리적임을 필자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에 큰 상처만 남긴 안전성 논쟁

농약 사건을 제외하고 본 저서에 언급된 대표적인 발암성 논쟁 사례로는 1988년의 사카린 유해성 및 과다사용, 1996년 채소류의 질산염 검출, 1985년부터 시작된 화학조미료 중 MSG (글루탐

산 나트륨) 유해성, 1976년 장류식품의 아플라톡신 검출, 1989년 식품포장 랩인 PVC, PE랩의 발암물질, 유해성분 함유논란, 1996년 분유에서 DOP, DBP 검출 등이 있다. 그리고 비발암성과 관련해서는 1985년과 1996년의 화학간장, 1989~1997년까지의 라면과 우지과동, 1973년 합성주정의 음료용 사용 적부심사 등이 있다.

필자가 판단할 때 이들 사건들의 공통점은 책의 머리말에 저자가 언급했듯이 “...안전성 논쟁은 소비자단체, 검사기관, 학계 또는 경쟁업체에서 발단되기 시작하여 여기에 언론이 참여하게 되고 법정이나 통상외교에 까지 비화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누군가에 큰 상처만 남기고 신통치 못한 결론을 남겨왔다. 이러한 논쟁에서 규제기관의 공신력, 매스컴의 객관성과 공정성, 식품기업의 현명한 대처방안 그리고 학계의 전문성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로 요약될 수 있다.

‘발암성 콩나물’ 전문 지식 부족의 다른표현

우리나라 신문에는 명사설

들이 있다. 예를들면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 과 최석채(崔錫采)의 ‘호헌(護憲)구국운동이외의 다른 방도는 없다’ 등이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정치관련 사설이다. 그러나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명사설은 보기 어렵다. 사실의 작성자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일까? 기자가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리말 표현능력을 살펴보자.

○○일보 2000. 6. 2(금)

“경기북부지역, 발암성 콩나물 다량 유통”

콩나물이 발암성이란 말인가? 발암성이 있다는 콩나물은 또 무슨이야기 인가? 또 같은 날 다른 신문에서도 일제히 검출된 농약이 발암성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인가? 2000년 상반기에도 먹거리 농약파문의 일순위는 ‘콩나물’ 이었다.

2000년 3월 27일에는 “콩나물 농약사용허용”이라는 거의 공통되는 제목으로 일제히 신문들이 보도했다. 우려보다는 비약과 근거없는 비난이 난무한 하루였다. 엄격하게 따지면 콩의 살균을 위해 농약등록을 허용하는 수준인 것을 ‘콩나물 재배시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오보하였다. 심지어 담당기관 관계자를 문책이상의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인가?

과학적으로 인간에 발암성농약 없어

프랑스 리옹에 있는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기관)는 1997년 검토위원회를 소집하여 1987년 발암성 유해성 평가 후 10년간 보고된 인간의 발암성에 관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검토했다. IARC의 인간에 대한 발암성 분류체계는 Group 1, Group 2 (Group 2A, 2B), Group 3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있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는 것은 Group 1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78개의 단일 또는 혼합물질과 노출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히 논하자면, 현재의 과학적 사실로는 78가지의 발암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Group 1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콜음료, 흡연, x-, γ-선 조사, 간염 바이러스 B, C, 아플라톡신, 벤젠, 카드뮴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문에 자주 등장하

는 농약 또는 현재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농약은 목록에 없다.

단순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언론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말 밖에 안된다. 시민들이 익히 들어 잘 알 것 같은 디디티는 Group 2B, 캡타폴은 2A,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살충제에 들어 있는 Dichlorvos (DDVP)가 Group 2B에 포함되어 있으니 기자들은 건수를 잡은 것이다. “아니 어떻게 발암성으로 의심되는 dichlorvos가 가정에 살포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이 허용했던 말인가?” 하면서 말이다.

적대감 보다 수용하는 자세 필요

“농약보도 왜 맹독성, 발암성으로 귀결되나?”의 해답은 뭘까? 국민건강에 대한 시민단체와 기자들의 지나친 우려와 애국심 때문일까? 아니면 이면에 숨어있는 부적절한 관계 속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일까? TV 토

론 프로그램에 비치는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군”식의 행태가 언론매체에 여과 없이 발산되는 느낌이다. 정부는 거짓말쟁이, 관련업체도 거짓말쟁이, 학계는 거짓말쟁이의 하수인, 언론과 시민단체만이 정의의 사도라는 구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들만이 시민의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할 뿐이다.

애국 언론인, 애국 시민단체는 정치적 논쟁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적대감을 버리고 수용하는 자세가 언론과 시민 단체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꼬마 아이들 싸움하듯이 목소리 큰 녀석이 이기고, 코피 먼저 터지는 녀석이 지는 식의 식품 안전성 확보 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철저한 견제와 질책은 좋다.

왠지 편안하지 못한 이상한 제도

중이 제 머리 깎기 어렵다. 농약업체가 농약안전사용광고를 내고 발암성, 맹독성은 없다고 매스컴에 광고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어 주겠는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일반재배 농산물은 안전합니다”라고 믿어 달라

고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된, 그래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구나”라는 확신감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

농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로 비추어 지는 현실인 만큼 유기농산물이니까 안전하고 농약 살포한 일반재배 농산물이니까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웬지 거부감 갖게 하는 요상한 제도도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통일의 귀로에서 있는 만큼 기아에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과 동포들을 위해 농업인이 통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 동포들에게는 남한사람들이 웬지 거부감 갖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한 일반재배농의 농산물을 우리가 못 산다고 보내주는가?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 보다 낫단 말인가? 하는 묘한 뉘앙스가 생길 수도 있다. 오늘 저녁은 농산물 시장에 들러 일반재배농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박하나 사서 신문과 TV를 읽은채 가족들과 용기종기 앉아 장마비의 지루함을 잊는 건강한 대화로 꽃피워 봄은 어떨까? **농약정보**